

FIXED INCOME MARKET

2026. 6

글로벌채권팀

김지만 수석연구위원

jiman8.kim@samsung.com

글로벌매크로팀

정성태 수석연구위원

sungtai.chung@samsung.com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 한국 경제의 교역 조건 충격과 금리

삼성증권

2026년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

한국 경제의 교역 조건 충격과 금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 교역 조건 충격(positive terms of trade shock)이 한국 경제의 성장·물가·재정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와 수출이 급증하면서, 당사는 '26년과 '27년 성장률을 각각 3.2%와 2.6%로 전망한다. '26년 수출(통관 기준)은 반도체가 160% 내외 늘면서 전년 대비 45% 증가하고, '27년에도 15%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생산 물량 증가는 연 20%에 그쳐 수출 증가의 5/6은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수출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지표인 GDI 증가율은 '26년 9.9%로 GDP를 크게 상회하고, 명목 성장률은 '26년 17.7%, '27년 8.9%에 이를 전망이다. 과거의 긍정적 교역 조건 충격이 주로 원자재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첨단 제조업 제품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며, 수출 가격 상승형 충격은 수입 가격 하락형보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속적이다.

증가한 소득은 조세·임금·투자의 세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된다. 법인세 세입은 양대 반도체 기업의 이익 급증에 힘입어 '25년 85조원에서 '26년 130조원, '27년 220조원으로 늘고, 양대 기업의 설비투자는 '25년 75조원에서 '27년 13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 결과 국제 수입은 '26년 450조원, '27년 565조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6년 말 43%, '27년 말 39%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소비도 '26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을 웃돌아 '26년 2.7%, '27년 3.0%로 전망되는데, 이는 재정의 낙수효과와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부의 효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26년 2,250만 명 예상)가 함께 작용한 결과다.

한국 채권시장

한국의 경우 성장과 물가 전망이 함께 높아지면서 금리에 상방 압력이 이어지는 국면에 있다. 당사는 한국 기준 금리가 '26년 두 차례(7·10월) 인상으로 연말 3.0%에 이른 뒤, '27년 상반기 추가 2회 인상을 통해 '23년 고점과 같은 3.5%(terminal rate)까지 높아지는 것을 기본 전망으로 본다. 이달 중 시장의 내재 선도 금리는 1년 내 최대 6차례 인상을 반영하기도 했다. 금리 레벨 측면에서 국고 10년은 이미 4.35%까지 상승했는데(현재는 4.13%), '22~'23년 금리 급등기에 10년물이 4.63%까지 올랐고 변동성도 높았으나 그 기간은 짧았다(4.2~4.4% 구간 32일, 4.4~4.6% 구간 2일, 4.6% 이상 1일). 이를 감안하면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고점이 더 높아질 여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수급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본다. 기업 영업이익 급증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면서 '27년 국채 순발행이 큰 폭 감소할 전망이다. 재정 지출 증가율 10% 가정 시 '27년 국채 발행은 13.7조원 순상환으로 예상되고 재정 지출 12%까지는 균형 재정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고 있다(참고: '25년 국채 순발행 112조원, '26년 순발행 109조원). 특히 8월 말 발표되는 정부 예산안이 이를 확인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26년 하반기 국채 예상 범위는 국고 3년 3.50~4.00%, 국고 10년 3.80~4.40%로 예상된다. 경기의 상방 압력을 감안, 기본적으로는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추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현 수준 이상의 금리 상황에서 듀레이션 확대도 고민해 볼 만하다.

미국 채권시장

미국은 당장의 통화정책 모멘텀이 약하고 금리의 상·하방 재료가 뚜렷하지 않다. 6월 FOMC는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으나, 당사는 관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 효과가 소멸하면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며, 추가 2회 인하('26년 12월, '27년 3월) 전망을 유지한다. 성장과 물가의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된 가운데 하반기 미 국채 2년물은 3.90~4.20%, 미 국채 10년물은 4.10~4.60% 범위를 예상한다.

PAR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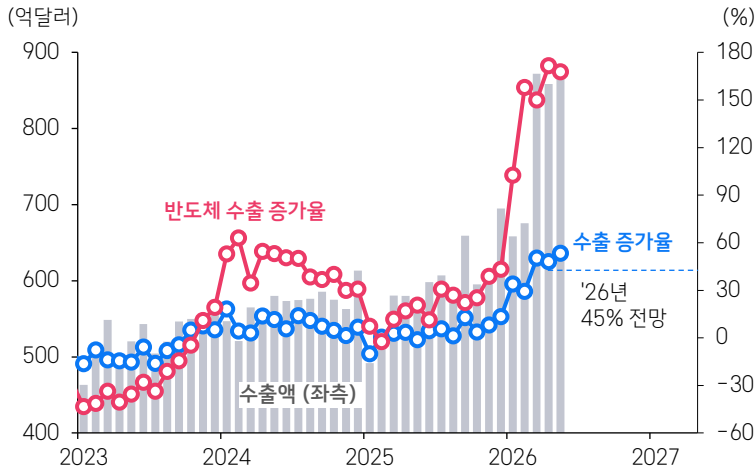
한국 경제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

삼성증권에서는 '26년 3.2%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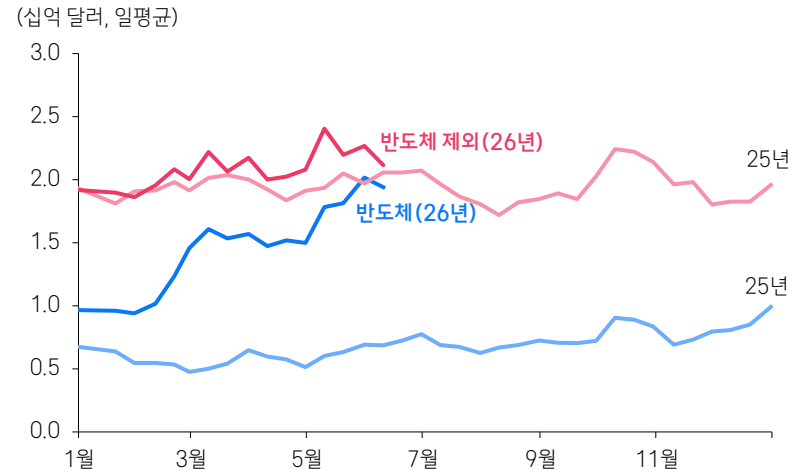
-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 급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전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26년 수출 전망 기존 33%에서 45%로 상향하며, '27년에도 15% 예상(반도체 수출 '26년 160%, '27년 30%)

한국 수출, 확인할 때마다 전망치 더 높아져



자료: 산업통상부, 삼성증권

반도체와 컴퓨터가 대부분 수출 증가를 설명



자료: 산업통상부, 삼성증권

한국 경제 Houseview

반도체 수출 급증은 조세, 임금, 투자 등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

- '26년과 '27년 한국 성장률을 각각 3.2%와 2.6%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각각 \$3천억, \$3.3천억 전망

한국 경제 지표 및 재정 지표 전망

		2025	2026	2027
성장	GDP 성장률	1.0%	3.2%	2.6%
	민간 소비	1.3%	2.7%	3.0%
	GDI 성장률	1.7%	9.9%	4.0%
	명목 성장률	3.2%	17.7%	8.9%
물가	소비자 물가	2.1%	2.7%	2.3%
	근원 소비자 물가	1.9%	2.3%	2.4%
재정	국세 수입	373.9조원	396조원(NABO) → 450조원+(삼성)	565조원
	법인세 수입	85조원	87.5조원(NABO) → 130조원(삼성)	220조원
	국가 채무 (% GDP)	48%	44%	39%
대외 부문	경상수지	\$123bn	\$300bn	\$330bn
	수출	3.8%	45%	15%

자료: 삼성증권

증가한 소득이 국민 경제에 파급되는 경로

	파급 경로	규모
조세	기업 소득 증가 → 법인세 증가 → 정부 지출 증가 (정부의 재정 지출 계획에 달려있음. 적어도 증가한 세입의 절반 정도는 지출된다고 가정)	법인세 세입 '26년 130조원, '27년 220조원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 법인(주로 대기업)은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반영하여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함('25.10월 법인세법)
임금	피용자 보수(임금) 상승 → 민간 소비 증가	'26년 대비 '27년 +55조원, '28년 +88조원 근로소득세 수입은 '25년 대비 '27년 +20조원, '28년 +30조원
투자	수요 초과 → 설비 투자 ↑ + 기반 시설 확대(건설 투자 ↑)	'25년 75조원, '26년 105조원, '27년 130조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설비 투자,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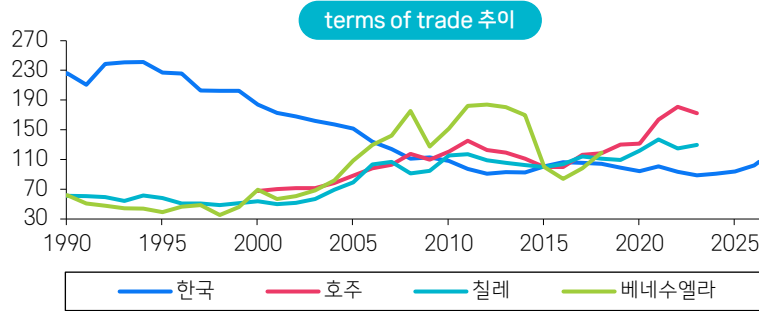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교역 조건 충격(positive terms of trade shock)을 겪는 한국

수출 물가의 상승에 의한 TOT 충격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지속적(Di Pace, Juvenal and Petrella, 2021)

- 수출 가격 상승은 투자 확대, 실질 소득의 증가, 조세 수입의 증가 등을 동반하여, 지속성과 영향력이 높음

교역 조건 충격의 사례



구분	사례	원인 및 특징
해외	호주 (2000년대 중반 ~2010년)	원자재 수요 급증하면서 교역 조건 2배 이상 증가 실질 소득과 투자 확대. 물가 상승 및 AUD강세 동기간 칠레, 베네수엘라도 유사한 경제적 변화
	네덜란드 ('70~80년대)	천연가스 수출, 제조업 경쟁력 약화
한국	'86~'88, '14~'16년	수입물가(유가) 하락에 따른 TOT 충격의 사례
	2025년 ~ 현재	수출 물가(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TOT 충격

자료: UNCTAD, 삼성증권

한국이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피할 수 있는 이유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1959년 네덜란드, 북해에서 막대한 천연가스를 발견한 후
수출 급증, 재정 및 경상 수지가 개선, 통화 가치(네덜란드 길더화)가 상승
→ 재정 지출 증가로 공공 부문 확대. 반면, 제조업 경쟁력 후퇴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오일 쇼크는 제조업에 큰 타격 + 실업률 급증

요인	설명
공급 제약	반도체는 원자재와 달리 공급자가 제한적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탄력성 낮추는 효과) 공급 확대까지 시차 존재(최소 '28년까지는 수요 우위)
해외투자 지속	내국인의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상쇄
학습효과	과거 TOT 충격 사례가 다수 존재 TOT 충격이 영속적이지 않고, 경제적 취약성 높일 수 있음이 알려져 있음 반도체 장기계약(LTA)는 반도체 사이클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정도로 파악
산업 특성	원자재 아닌 첨단 제품 → 지속적 기술경쟁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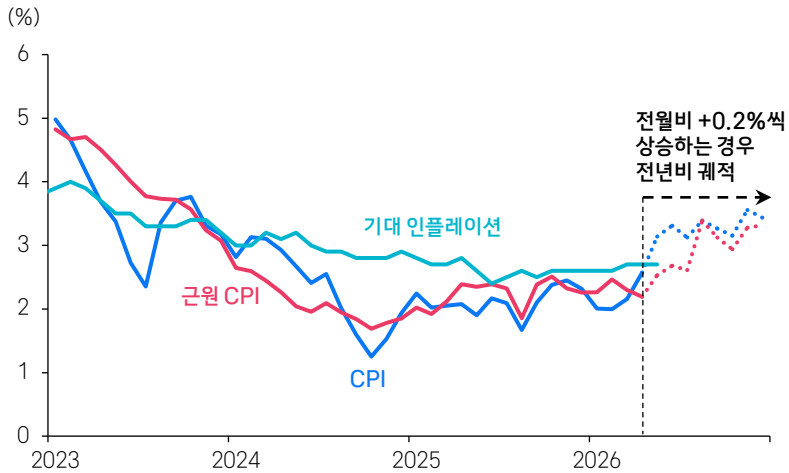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기대 인플레이션 제어도 필요한 시점

최고 가격 상한제로 상승 폭 제한적이었던, 물가 안정 속도도 완만

- 중동 전쟁 여파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20bp 상승
- '2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본 전망은 2.7% (연고점은 3.4~3.6% 수준 예상)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삼성증권

국제 유가 및 소매 휘발유 가격 추이



참고: 가격은 2차 이후 동일(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자료: 한국석유공사, Bloomberg, 삼성증권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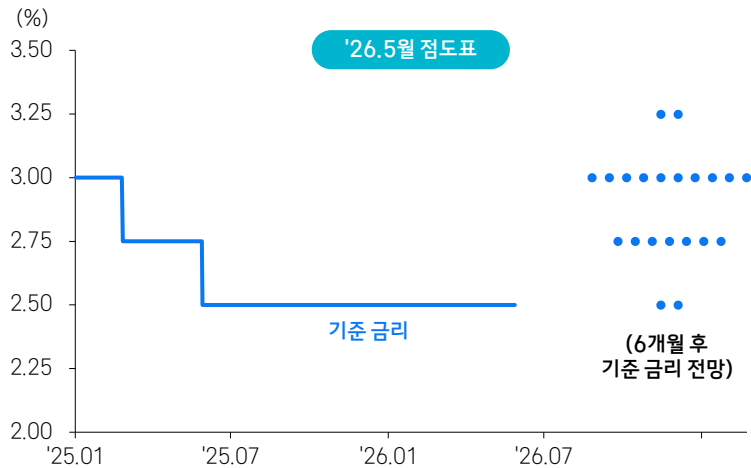
한국 채권시장

한국 채권시장 기준 금리 전망

한국 기준 금리는 연내 3.0%까지 인상 (Terminal rate은 3.5%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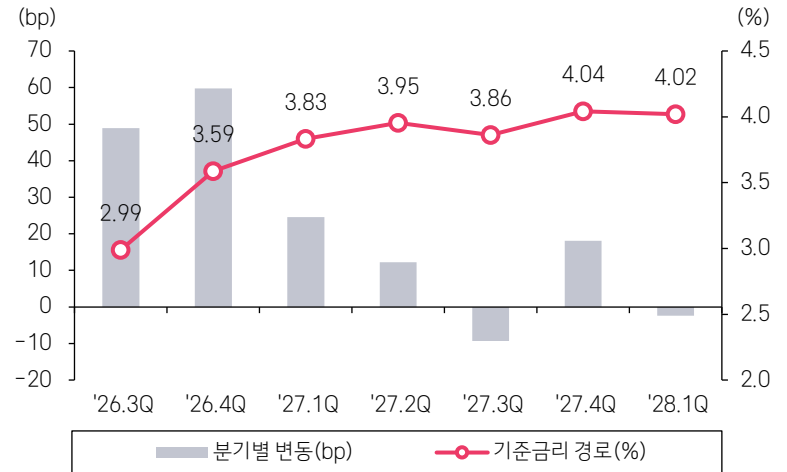
- ToT 충격과 기대 인플레이션 감안, '26년 7월 + 10월 + '27년 상반기 2회 인상 예상
- 내재 선도 금리는 향후 1년 내 최대 6차례 인상 반영.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로로 판단 (지난 '22년에는 4.3%까지의 인상 경로가 반영된 바 있음)

한국은행 점도표, 금통위원 구성 및 대외 여건 변화로 변화 클 전망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STRIPS 내재 선도 금리는 1년 내 최대 6차례 인상 반영



자료: 삼성증권

한국 기준 금리 인상기 정리

최종 금리(=terminal rate) 수준에 따라 채권 금리 고점 시기도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

- 유형① 첫 인상 전 국채 금리 고점: 2002년, 2010~11년 사례
- 유형② 기준 금리 인상 초기 국채 금리 고점: 2017~18년 사례
- 유형③ 기준 금리 인상 후기 국채 금리 고점: 2005~08년, 2021~23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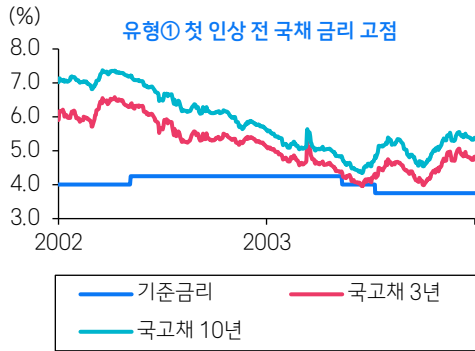
한국 기준 금리 인상기 정리

	기준 금리 인상기간	기준 금리 변동	인상 폭 (bp)	인상 횟수	채권 금리 고점 시기	첫 인상시점 spread (3년)	첫 인상시점 spread (10년)	3년물 고점	3년물 고점 시점	10년물 고점	10년물 고점 시점
1	2002.05 (1회)	4.00 →4.25	25	1	유형① 첫 인상 전	234	322	6.58% (02.04.09)	인상 전 28일	7.37% (02.03.19)	인상 전 49일
2	2005.10 ~2008.08	3.25 →5.25	200	8	유형③ 기준 금리 인상 후기	139	193	6.17% (08.07.14)	진행 중 98%	6.20% (08.07.03)	진행 중 97%
3	2010.07 ~2011.06	2.00 →3.25	125	5	유형① 첫 인상 전	194	294	4.31% (10.01.28)	인상 전 162일	5.39% (10.01.18)	인상 전 172일
4	2017.11 ~2018.11	1.25 →1.75	50	2	유형② 기준 금리 인상 초기	82.5	122.7	2.32% (18.02.20)	진행 중 22%	2.81% (18.05.15)	진행 중 45%
5	2021.08 ~2023.01	0.50 →3.50	300	10	유형③ 기준 금리 인상 후기	89.8	142.8	4.55% (22.09.26)	진행 중 78%	4.63% (22.10.21)	진행 중 83%
6	(예상) 2026.07 ~2027.05	2.50 →3.50	100	4	현재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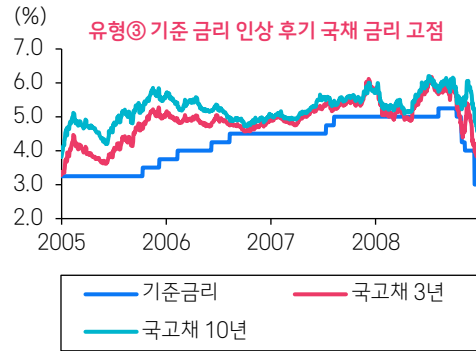
자료:Infomax, 삼성증권

한국 기준 금리 인상기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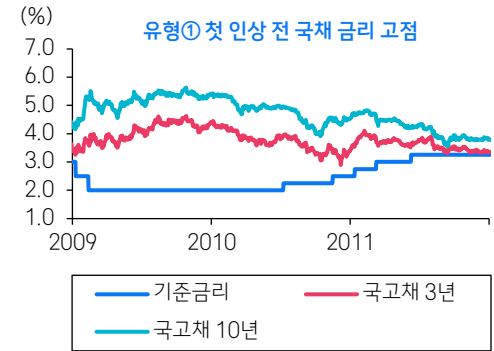
2002년 기준 금리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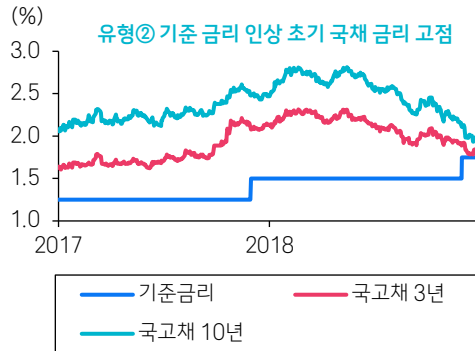
2005~08년 기준 금리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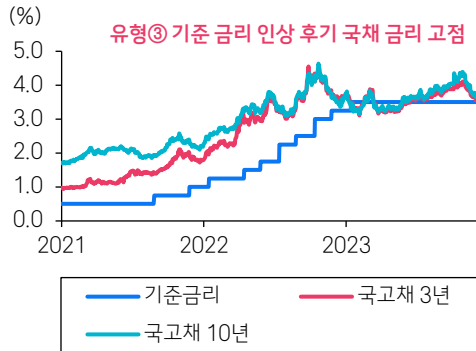
2010~11년 기준 금리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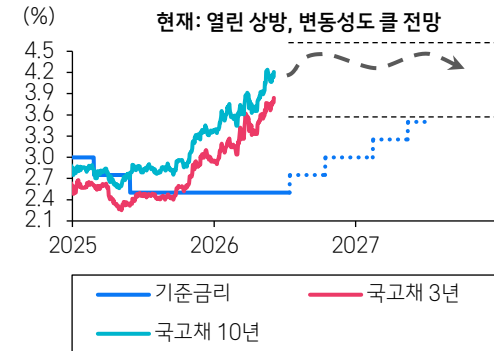
2017~18년 기준 금리 인상



2021~23년 기준 금리 인상



현재: 7월, 기준 금리 인상 시작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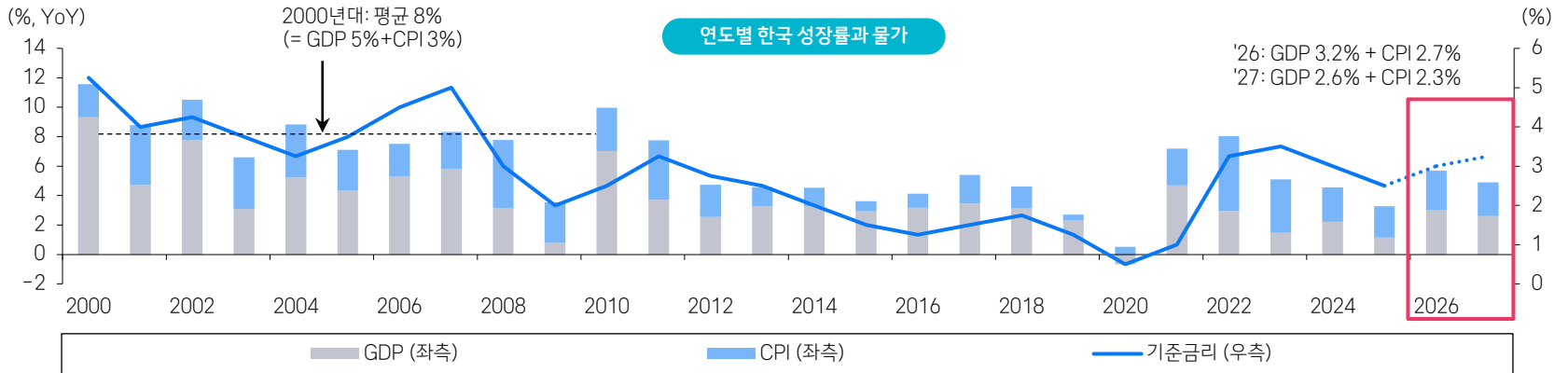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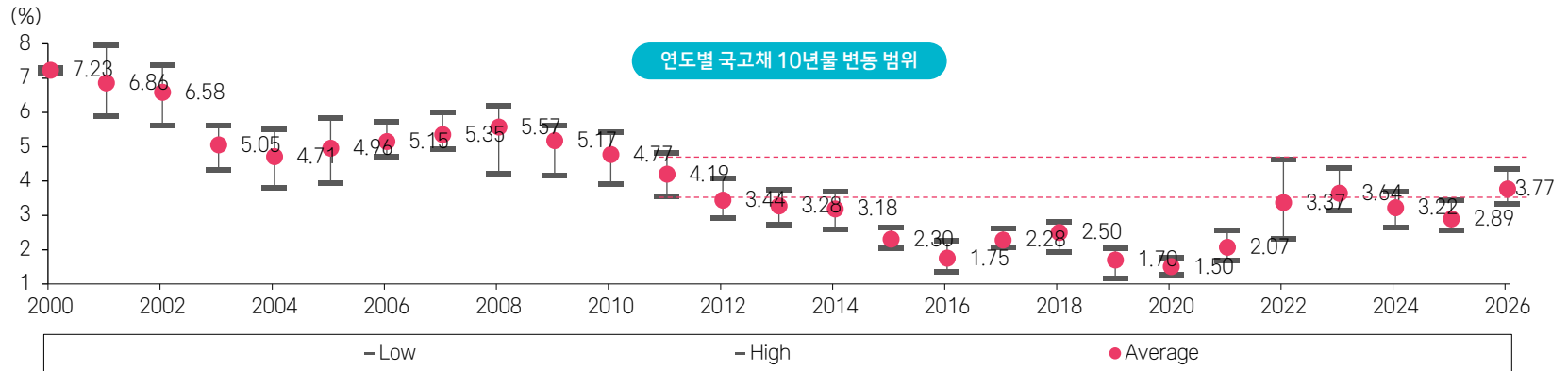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금리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등락

국채 금리 향후의 경제전망을 상당 부분 선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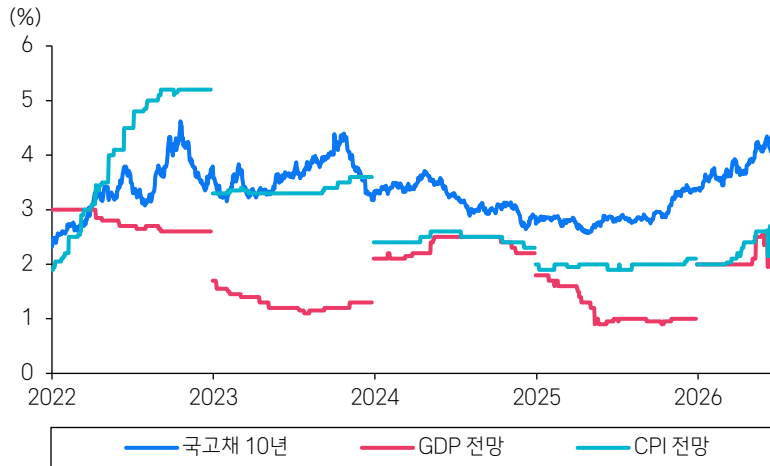


참고: '26, '27년 GDP, CPI는 당사 전망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지난 사이클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제한적. 변동성은 높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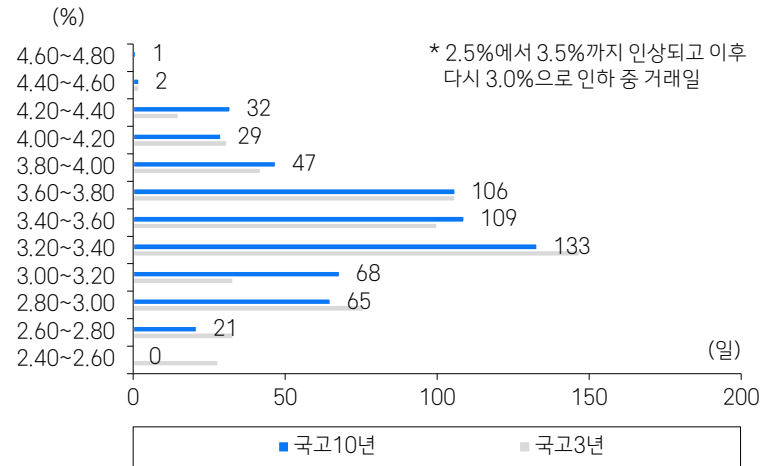
- 시장 컨센서스 또한 성장과 물가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음(현재 각각 2.6%, 2.7%, Bloomberg)
- 시장의 기대는 이미 큰 폭의 기준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고 지난 금리 인상 사이클과도 비교 가능
- 당시 10년물 금리가 4.6%대(4.63%)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기간은 짧았음(4.2~4.4% 범위 32일, 4.4~4.6% 범위 2일, 4.6% 이상 1일)
- 금리 고점이 더 높아질 여지는 제한적이나 변동성은 클 것으로 예상

성장과 물가 전망이 함께 높아지면서 금리에도 상승 압력 이어지는 국면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삼성증권

지난 금리 사이클, 레벨별 금리가 머문 기간(일) '22.8~25.2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국채 발행 기조에 대한 재평가 필요

과감한 재정 정책 기조를 감안해도 국채 순발행은 크게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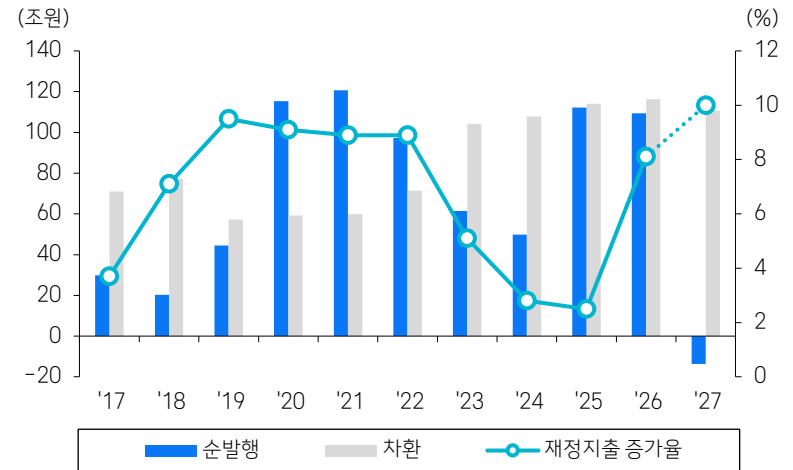
- 재정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지출 증가율 10%로 가정해도 국채 -13.7조원 순상환 예상
- 참고: '25년 국채 순발행 112.2조원, '26년 국채순발행 109.4조원

'27 재정 지출 증가율별 시나리오(단위: 조원)

재정 지출 가정 (%)	재정 지출	통합수지	순발행
0%	753	105.0	-89.0
6%	798.2	59.8	-43.8
8%	813.2	44.8	-28.8
10%	828.3	29.7	-13.7
12%	843.4	14.6	1.4
14%	858.4	-0.4	16.4
16%	873.5	-15.5	31.5
18%	888.5	-30.5	46.5
20%	903.6	-45.6	61.6

참고: 국채 순발행 = 재정 지출 - 재정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 기타금융요소 - 비국채재원(세계잉여등)
 자료: 삼성증권

재정 지출 증가율 10% 가정해도 국채 순발행은 큰 폭 감소



자료: 재정경제부, 삼성증권

국가 채무 경로 전망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6년 말 43%, '27년 말 39%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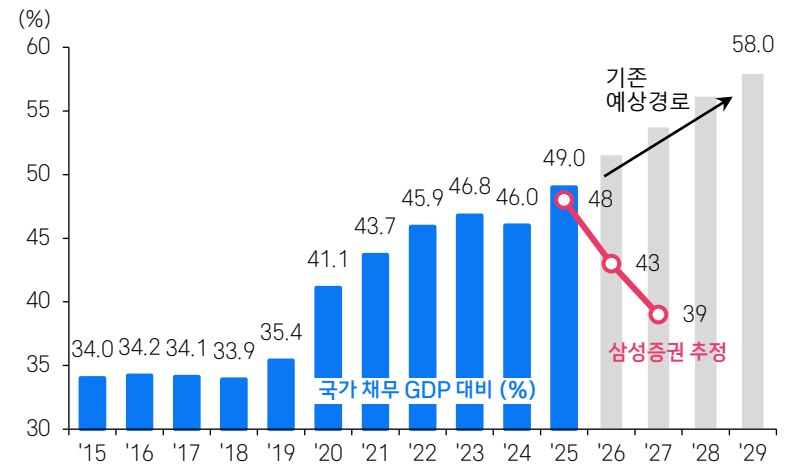
- '26년 추경 예산안 대비 '26년과 '27년 법인세세입 증가만 하더라도 30조원과 120조원 + 명목 GDP '26년 17.7%, '27년 8.9%
- '26년 GDP의 1.1%와 4.4%(전체 정부지출 기준으로는 4.0%와 13.2%)로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적 충격을 충분히 완충 가능
- 중장기 재정 전망에서의 지출 증가를 반영하면, 명목 성장률 상승과세입 증가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6년 말 43%, '27년 말 39%로 감소
- 국가채무 비율의 하락으로 중기적인 대응 능력 높아질 전망

'26년과 '27년 법인세 수입이 급증

세목	'24 실적	'25 실적	'26 예상 (NABO)	'26 예상 (삼성증권)	'27 예상 (삼성증권)
총국세	336.5	373.9	396.1	450+a	565+a
소득세	117.4	130.5	136.7	140	160
법인세	62.5	84.6	87.5	130	220
부가가치세	82.2	79.2	86.7	90	92
기타	74.5	79.6	85.3	90	93

자료: NABO 「2026년 NABO 국세 수입 전망: 2025~2029」(2025.10), 삼성증권

GDP 대비 국가 채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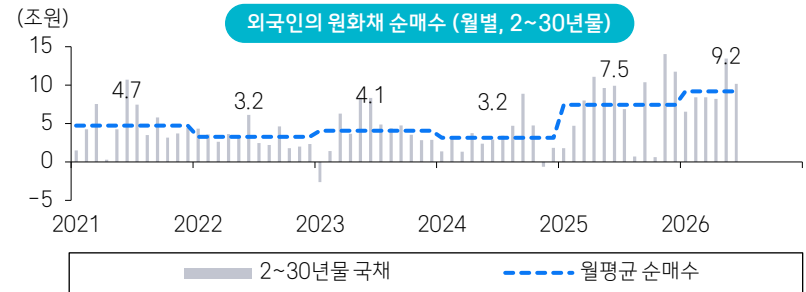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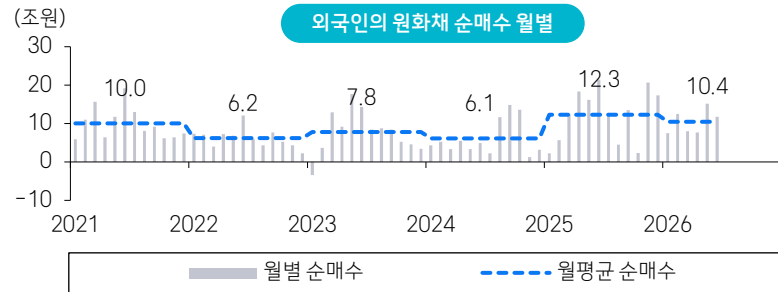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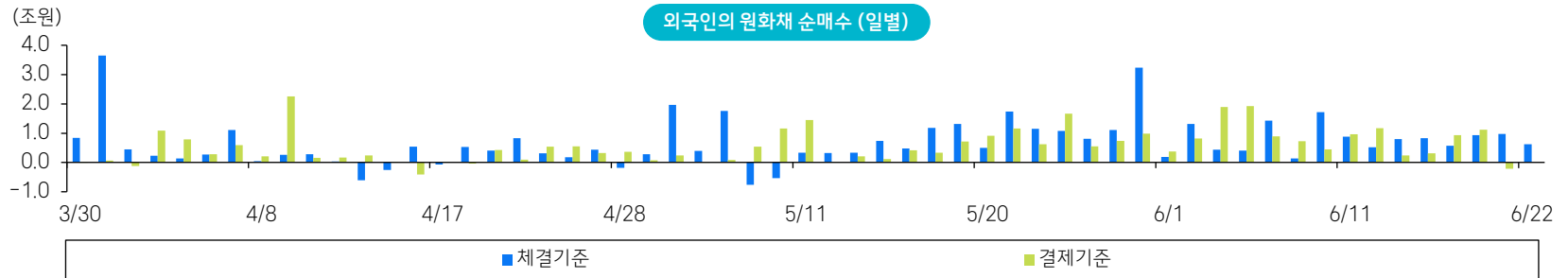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2025.9), 삼성증권

WGBI 자금은 유입 상황은?

WGBI 매입 대상 채권 중심으로 순매수 증가

- WGBI 대상 채권 위주로는 잔고 증가. WGBI 비대상 국고채, 통안채, 공사채, 금융채 등은 투자 부진
- 외국인 보유 원화채 잔고는 연초 338.3조원에서 현재 351.2조원(6.10일 355.8조원→6.11일 국채 만기에 따라 4조원 감소)

외국인의 원화채 순매수 추이



자료: Infomax, 삼성증권

보험사 장기채 투자 유인 낮아져

보험사 K-ICS 비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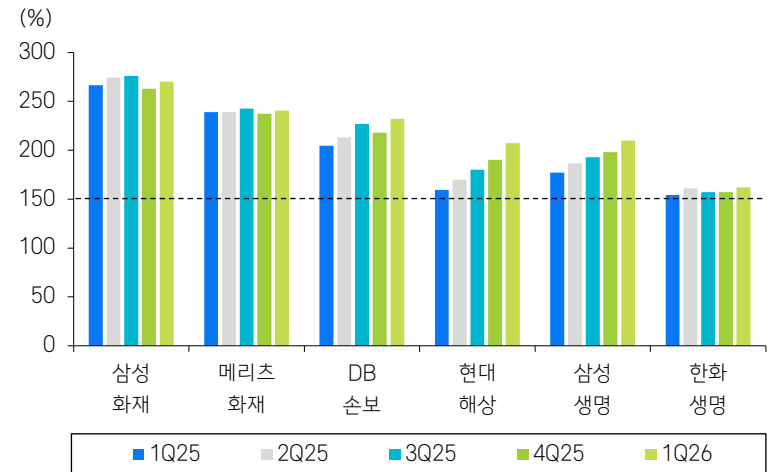
- K-ICS는 100% 넘으면 문제 없으나 금융당국 권고기준은 사실상 150%. 지금은 다수 회사가 200% 위이므로 유인 축소된 상황
- 현대해상, 삼성생명: 부채민감도가 더 높아서 금리 상승 시 부채감소 영향 큼
- 한화생명: 작년에 자산 듀레이션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민감도 떨어진 상황

보험사별 K-ICS 비율 변화

	1Q25	2Q25	3Q25	4Q25	1Q26
삼성화재	266.6	274.5	276	262.9	270.1
메리츠화재	238.9	238.9	242.7	237.4	240.7
DB손보	204.7	213.3	227	217.9	232.1
현대해상	159.4	170	180	190.1	207.2
삼성생명	177.2	186.7	193	198	209.9
한화생명	154.1	161	157	157	162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금리 상승에 따라 K-ICS 비율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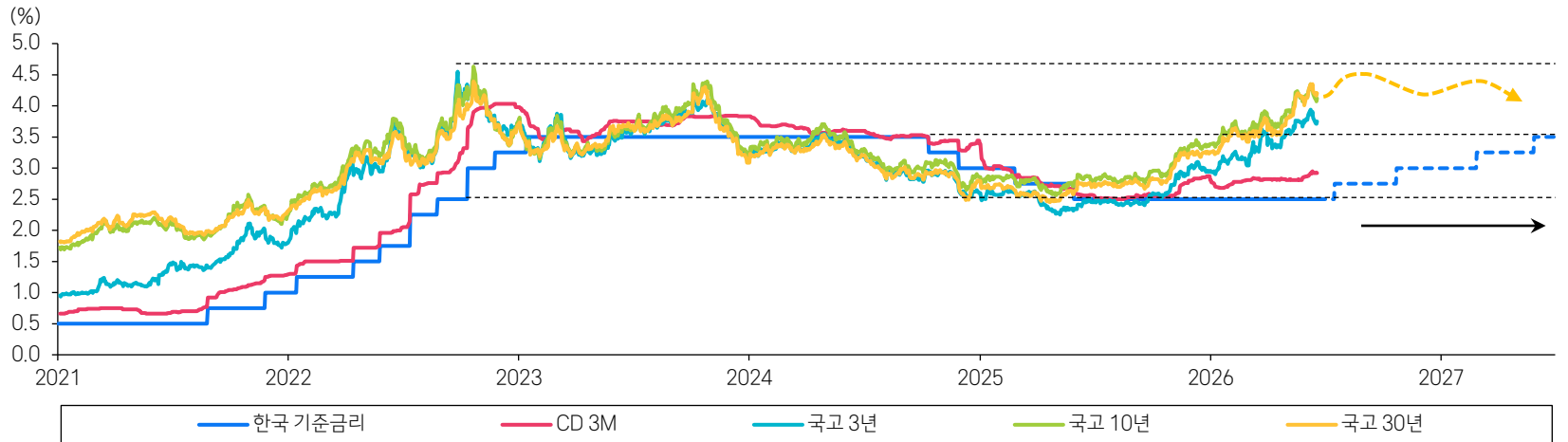
자료: 각사, 삼성증권

기본적으로는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 필요

경기의 상방 압력을 감안, 기본적으로는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보수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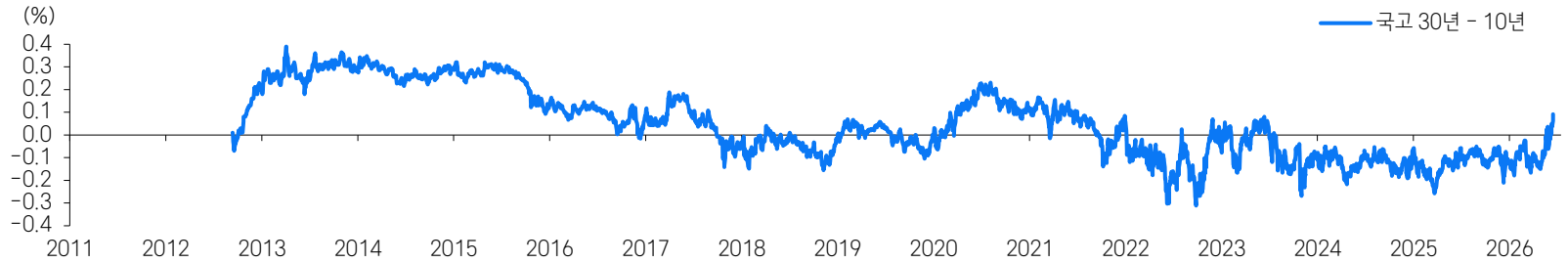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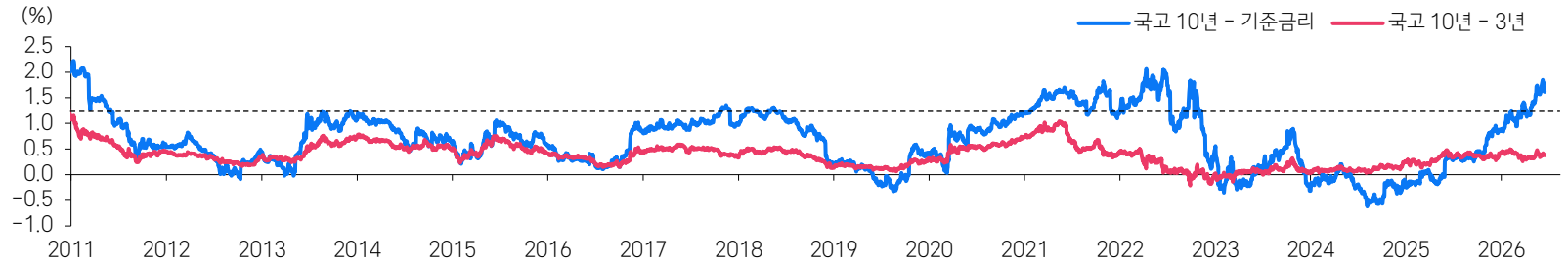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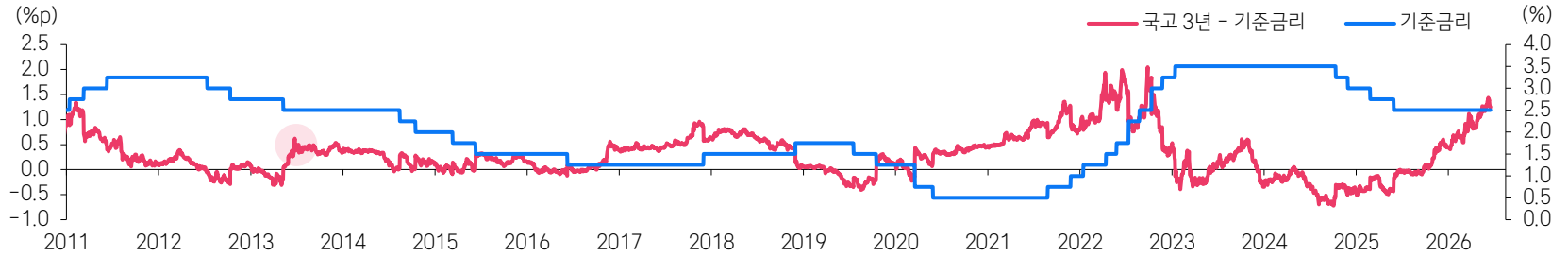
- '26년 하반기 국채 예상 범위는 국고 3년 3.50~4.00%, 국고 10년 3.80~4.40%로 예상
- 경기의 상방 압력을 감안, 기본적으로는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추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현 수준 이상의 금리 상황에서 듀레이션 확대도 고민해 볼 만함

기준 금리 인상 전개에 따라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한국 채권시장 주요 스프레드



PART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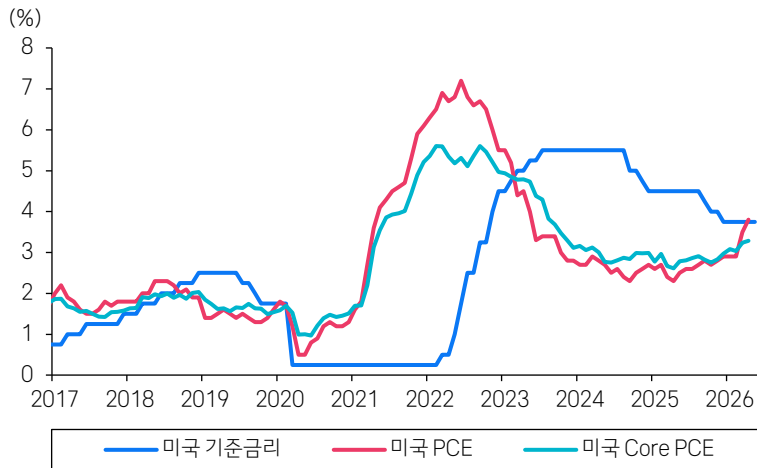
미국 채권시장

금리 인하 기대 변화가 미국채 시장에 영향

금리 인하를 크게 Pricing했던 중기영역 늘림은 연중 되돌림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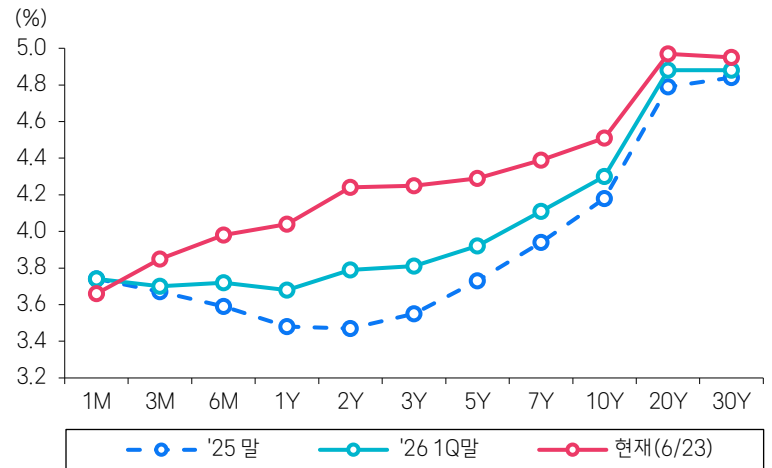
- 미국 물가는 상승하면서 현 미국 기준 금리와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 Data dependent 관점에서 보면 추가 기준 금리 인하까지 시간 필요한 여건임
- 중기영역 늘림이 큰 상태에서 올해를 시작, 통화정책 기대 변화로 미국채는 중기 영역 금리 상승 전개

미국 물가 오르면서 Fed 기준 금리 인하 기대 후퇴한 여건



자료: Fed, Bloomberg, 삼성증권

통화정책 기대 변화로 중기 영역 금리 상승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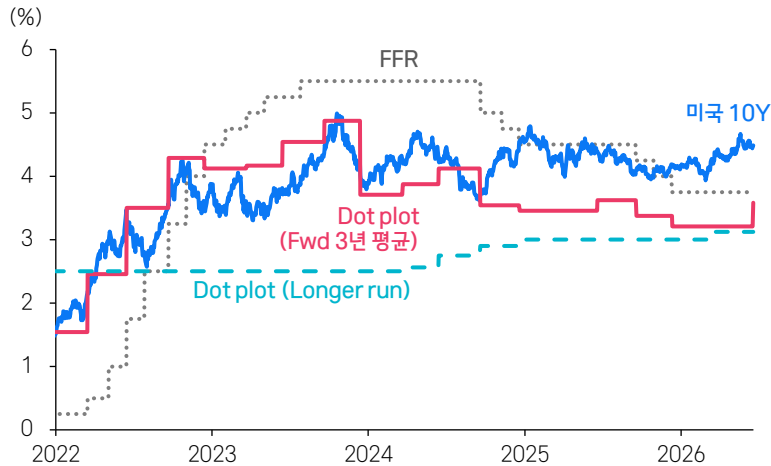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상하방 리스크 모두 제한적

6월 FOMC가 매파적이라는 평가 많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의 threshold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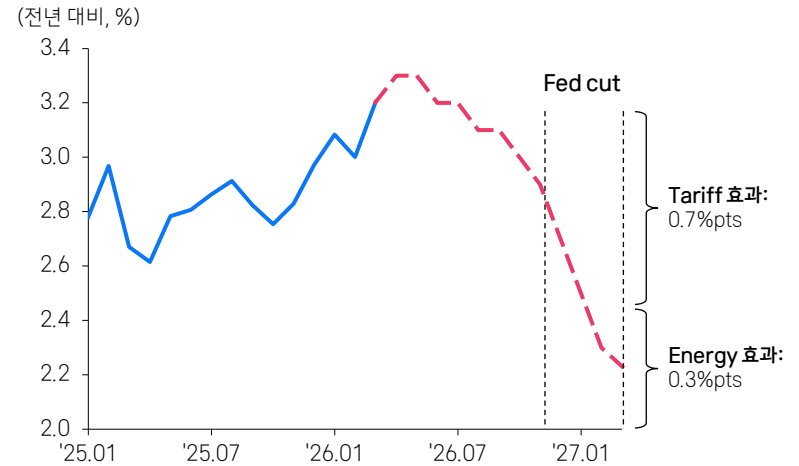
- 관세 및 에너지 가격 상승 효과 소멸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미국 headline과 core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약 -0.8~-1.0%pts 하락
- 금리 인상의 threshold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며, 당사는 미국 기준 금리에 대해 여전히 향후 추가 2회 인하('26.12+ '27.3월) 전망을 유지
- 미 10년물은 성장과 물가의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된 가운데 기존보다 높아진 박스권(4.20~4.60%)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미국 FFR, 점도표 변화 및 미국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핵심 PCE 예상 경로



자료: 삼성증권

이벤트 일정 및 금리 전망 테이블

주요 이벤트 & 일정

2026 6월

- ECB(6/11)
- BOJ(6/16)
- FOMC (6/17)

2026 3Q

- 금통위 (7/16, 8/27)
- ECB (7/23, 9/10)
- FOMC (7/29, 9/16)
- BOJ (7/31, 9/18)
- 정부 예산안 (8월 말 ~ 9월 초)

2026 4Q

- 금통위 (10/22, 11/26)
- FOMC (10/28, 12/9)
- ECB (10/29, 12/17)
- BOJ(10/30, 12/18)
- '27년 국채 발행 계획 (12월)

금리 전망 테이블

(%)	26.1Q	26.2Q	26.3Q	26.4Q
한국 기준 금리	2.50	2.50	2.75	3.00
한국 국채 3년	3.20	3.66	3.70	3.75
한국 국채 10년	3.61	4.05	4.10	3.90
한국 국채 30년	3.51	4.00	4.15	4.00
미국 기준 금리 (upper)	3.75	3.75	3.75	3.50
미국 국채 2년	3.57	4.00	4.10	4.00
미국 국채 10년	4.20	4.45	4.40	4.30
미국 국채 30년	4.82	5.00	4.95	4.90

참고: 기준 금리는 기말, 국채 금리는 기간평균
 자료: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